

【서평】

##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하우봉, 경인문화사, 2014)

이 상 규\*

### 1.

필자가 1990년대 초반 대학원에 진학했을 무렵, 서점에 보이는 한일 관계사 서적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몇몇 번역서와 전공서 몇 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저자의 1989년 저서(『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89)를 사서 틈틈이 참고하였다. 석사과정 중에는 주위에 관련 전공자를 찾기 어려워 학회를 찾아서 나갔고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사연구회)에 나가서 귀동냥을 하고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새삼 20여년 전의 입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필자가 본서를 읽고 품평할 만한 전공자도 아니며 공부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서평을 맡겨진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이다. 필자는 학회에서 저자로부터 짤막한 언지를 들으면서 또 때로 학문적으로 과분한 지우를 받아왔다. 경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자가 주창해 온 해양사학의 성과를 후배 세대의 연구자로서 진솔한 소감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기에 감히 서평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2.

저자 하우봉 교수는 1980년대부터 한일관계사 분야에 주력해 온 한국 내 대표적인 연구자의 한 사람이다. 단독 저서로는 1989년에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일지사), 2006년에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혜안), 2015년에 『조선시대 바다를 통한 교류』(경인문화사)를 냈다. 일본 내의 三宅英利, 小川晴久, 姜在彥의 주요 저작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였고, 특히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의 기본 사료인 『增正交隣志』, 『邊例集要』(일부)를 국역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크게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상으로는 1부는 일본과의 교류이고 2부는 유구·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로 꾸며졌다. 머리말에서 해양사학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한국사에서 해양사관이 중시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제1부의 제1장은 조선 전기의 대일관계이다. 15세기에 조선이 대일의 교류를 성립해 가는 과정, 왜구 정책을 수립하고 대마도 정벌을 단행한 것, 대마도 정벌 이후 양국 간에 통교체제의 확립, 16세기에 들어서서 삼포왜란, 사랑진왜변, 을묘왜변으로 이어지는 국교의 단절과 재개를 수월하게 정리하였다. 경제적 교류, 사절의 왕래와 문물 교류, 상호인식의 각 측면도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통설적인 견해에 충실하게 기반하면서도 이전 개설적인 내용을 다룬 논저에서 빠졌던 측면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제2장은 임진전쟁의 전개와 의의이다. 한국사에서는 '임진왜란'으로 불리워 왔고 전쟁을 도발한 일본, 원군을 보낸 중국, 북한의 역사기술에서 지칭되는 용어가 각기 틀리다. 저자는 제1기 한일역사연구공동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서 객관적인 역사 용어로서 '임진전쟁'이란 용어를 주장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새로

은 용어 규정을 표방한 만큼 저자는 임진전쟁의 전개와 의의를 전쟁 이전, 전쟁 경과, 전후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변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무난한 흐름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측면을 쓰면서 인적·물적 교류, 의식의 변화까지도 빠짐없이 시야에 넣으려고 하였다.

제3장은 조선 후기의 대일관계이다. 교린관계의 회복기(1599~1635), 교린체제의 안정기(1636~1811), 교린관계의 쇠퇴기(1812~1876)로 시기 구분하였고, 특히 마지막 통신사행 이후의 19세기 조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부산을 통해서 조선의 통신사행과 문위행을 보내고, 반대로 일본의 연례송사와 별차왜가 도해하여 접대를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삼포왜관 시기부터 17세기 이후 부산의 단일왜관 시기를 통관하였고, 분량적으로 초량왜관 시기에 비중을 두고 왜관의 직제, 무역, 교류를 살펴 나갔다. 저자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외교체제를 단절적인 요소보다는 연속성의 시야에서 고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관구역에서 조선이 교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인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접근 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연구로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4장은 통신사외교와 외교의례 문제이다. 이 장은 1711년 신묘통신사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1607년 회담겸쇄환사의 시기, 1636년 통신사로 이름이 바뀌었던 시기, 1711년 통신사 시기의 병례 개편, 1811년 대마도역지통신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711년 통신사행 시기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으나, 1763년 통신사행의 경험도 덧붙여서 언급하였고 조선 전기에 일본국왕사를 접대한 외교의례, 초량왜관 시기의 의례도 거론하여 문제의식을 확장하려 하였다. 필자도 지적했듯이 이 장은 양국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까지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으나, 부분은 갖추어졌으나 전체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5장은 개항기의 한일관계이다. 1876년부터 1882년까지 4차례의 수신사가 개화자강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 일

본에 파견된 통신사행과 비교하여 외교사절의 성격도 밝히고자 한 연구다. 저자는 수신사의 규모가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단출해졌다고 하였다. 외교의례를 위한 상당한 인원을 데리고 간 통신사에 비해서 성격이 확 달라진 점이다. 1876년의 제1차 수신사 金綺秀, 1880년 2차 金弘集, 1881년 3차 趙秉鎬, 1882년 4차 朴泳孝 모두 건문을 남김없이 기록해 오고 외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하였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일본 체재중의 움직임은 폭이 달랐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제2부 유구·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는 4편에 수록하였다.

제1장은 유구와의 관계이다. 고려말에 양국 관계가 열린 이래 인조대의 명 사행을 통한 교류까지 양국 관계를 통괄하여 고찰하였다. 대체로 유구의 사신이 내빙하였고, 조선이 보낸 사자는 항해의 위험 때문에 몇 회에 지나지 않았다. 세조대에 유구 사신을 후대하여 점차로 유구 사신을 가장한 거짓 사자 즉 위사가 성종~중종대에 도해하였고, 명종대 이후로는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교류하는 방식으로 변모되었다. 저자는 양국 관계의 시기 구분을 선행 연구와 달리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유구 사절을 대행한 것과 거짓 사자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조선의 표류인을 유구국에서 송환해 오고, 그것에 힘수는 절반이었지만 조선이 유구 표착인을 돌려보냈다는 점이 양국관계를 성립시킨 기본 요소였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제2장은 유구와의 문물 교류와 상호인식이다. 저자의 오랜 관심사가 일본 인식, 대외관이었기 때문에 제1장보다 논증 수준이 더 진전되었다는 인상이 든다. 15세기에 유구는 조선에게 대장경, 불경 등을 구청하여 받아갔고 1609년 사츠마번의 침략을 받고 유구는 사츠마에 붙잡혀 온 조선인 도공을 초빙하여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았다. 조선은 세종대에 유구 선박의 장점을 수용하려 했으나 효과는 적었다. 저자는 상호인식

을 다루면서 15세기의 梁誠之·申叔舟로부터 조선후기의 李晬光, 李敦仲, 실학자들이 가졌던 유구 인식을 종적으로 기술하였다. 또 시야를 달리하여 조선인 표류민의 유구인식을 촘촘히 분석하였고 조선의 고지도에 나타난 유구인식이 해당 시기의 중국이 편찬한 지도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고도 하였다. 사료적으로 부족하지만, 유구의 조선인식까지도 기술하여 조류관계의 면면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제3장은 동남아시아와의 교류이다. 이 장도 저자가 선행 연구를 착실하게 소화한 바탕 위에서 고려말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사실을 종합해서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전기에 시암(태국)·자바국과의 교류가 몇 번 있었고, 임진전쟁 중에 명 원군 가운데 동남아시아인들이 참전한 사실이 언급되었다. 고려 우왕대의 李崇仁으로부터 조선 18세기까지 중국 사행을 가서 베트남 사신과의 문화교류가 부단히 있었고, 그 가운데 내용적으로 풍부한 것은 李晬光이 1597년(선조 30)에 베트남 사자 馮克寬과 교류한 사실이다. 피로인과 표류민의 베트남 체험의 소절을 설정하여, 피로인으로서 베트남에 갔던 趙完璧의 사례, 숙종대에 제주도인이 베트남에 표류한 사실, 1611년(광해군 3)에 제주도에 표착한 베트남 상인의 예를 자세히 다루었다. 저자는 장의 말미에서 종합, 집성의 현단계를 진단하면서 해양사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19세기초 유럽과의 교류(-시볼트와 조선 표류민의 만남을 중심으로-)이다. 시볼트는 독일인 의사로서 19세기 초반에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의사 이전에 동인도연합회사의 직원으로 종합적인 일본지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있었다. 그가 6년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가까이 있던 조선인 표류민들을 만나 대화하여 남긴 기록이 그의 저술 『일본』(1832년 초판)에 들어갔다. 저자는 『일본』 조선편의 체재와 내용, 시볼트와 조선 표류민의 교류, 시볼트의 조선 인식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시볼트의 조선편이 그 이전 벨테브레, 하

멜의 기록이 유럽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학술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시볼트의 조선 인식이 부정적인 선입관을 배제하고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에 입각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 3.

이 책에서 저자가 실학자의 일본관(1989),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2006)에 이어지는 연구의 지평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평자라도 저자의 온축된 연구 성과를 읽고 사설을 늘어놓은 처지는 못된다. 어디까지나 성실한 독자의 한 사람으로 외형상으로 느껴지는 인상을 정리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다.

첫째, 하교수의 저술은 대체로 선행 연구를 충분히 파악한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中村榮孝, 小葉田淳, 田中健夫의 관련 성과, 그리고 한국의 李鉉淙, 李進熙의 관련 연구에 근거해서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 점은 저자의 10년 전 저서에서도 강조된 바 있었고, 앞으로도 본서에 이어지는 중후한 작품의 연작을 기대하게 만든다.

둘째, 저자는 전체 9편의 글에서 되도록 관련된 범위를 골고루 정리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편마다 원 출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논문적 형태를 띠는 것도 있고 전면적이고 종관적인 저술에 공을 들인 것도 있다. 각편마다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독자가 한꺼번에 읽어나가기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전체상을 궁금하게 여기는 독자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약점을 예상하면서 전체를 조망하면서도 무난한 서술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싶다.

셋째, 제1부의 5편은 기존 연구 성과도 있지만 저자가 자신의 관점 하에서 제기한 사항도 발견된다. 통신사의 시기 구분을 조선 전·후기를

동물적인 비중에서 다루려고 한 점, 개항기의 4차례 수신사로 확대한 점 또한 조선시대 전체를 놓고 보려는 저자의 의도가 느껴진다. 제2장은 '임진전쟁'이라는 역사용어를 주장하면서 그에 걸맞게 동아시아 정세를 수월하게 엮어낸 점도 눈에 뜨인다.

넷째, 제2부의 4편은 저자가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표방한 해양사관의 작품들이다. 제1·2장은 1990년대 이후의 저자의 오랜 탐구뿐만 아니라 저자가 찍은 자료 사진에서도 저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제3장 베트남(동남아시아)과 조선의 교류, 제4장 19세기초 유럽과의 교류는 저자가 역사학 방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주창하고 입증해 왔고, 그런한 점 때문에 본서가 표방하는 해양사관이 결코 낯설지만은 않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돋보이는 점은 깊이를 달리한다면 더 눈에 뜨일 것이다. 다만 저자가 분량을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관계사적인 요소가 국내 정치와 덜 연동된 채로 서술된 점은 아쉽게 느껴졌다. 저자의 이 책은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영역이 관계사적 요소를 넉넉히 갖추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유럽과 관계된 영역으로 뻗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거꾸로 대외관계사의 기술이 국내 정치적 요인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서술되지 못한 점은 옥의 티로 다가왔다. 국내 정치사와 대외 관계사의 결합적 서술은 자주 거론되는 명제이기는 하나 하루아침에 해결된 사안이 아니므로 저자만의 한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 일천한 이력을 가진 평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평자는 가끔 저자에게서 화두와 같은 짙막한 주장을 들었다. 비로소 2014년에 출간된 해양사관을 표방한 저술을 읽으면서 단구에 담긴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자신의 시야를 견지하면서도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애를 썼으면 또 해양사학의 표방이 허언만이 아니라는 점을 긴 호

흡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앞으로 저자의 묵직한 저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될지 궁금해졌다.